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13. 서머나 교회

2013. 03. 31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어 오늘도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르게 깨달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2:8~11]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10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로 표상되는 1세기 교회의 형편을 예언한 말씀으로 당시 교회 사정을 알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 사정은 정말 지금도 적용되는 기별입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답: 예,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 약 80km 지점에 있고, 당시 인구가 약 20-30만 정도로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시아 제일의 아름다운 도시라는 칭송을 듣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서머나를 “아시아의 장신구, 면류관, 아시아의 꽃”이라고 찬양했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칭송한 말들을 전하는데, 동지중해에서 서머나 만큼 아름다운 도시가 없다고 고고학자 람세이가 말했다고 하고 아리스티테스라는 사람은 창조 이래 일찍이 인간이 보지 못한 그런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이라 했다고 전했습니다. 서머나는 BC 1000여 년 전에 헬라의 식민지로 건설되었는데, BC 580년경에 리디아가 쳐들어와서 파괴되었다가 다시 BC 290년경에 리시마쿠스가 무역 중심지로 계획하고 균형지게 개발한 계획도시로 건설했습니다. 지금은 이즈미르이고 현재 터어키의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로마에 아주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BC 195년에 여신 로마를 섬기는 신전을 건설하고 황제 숭배지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황제 숭배를 위하여 최초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서머나”란 말 가운데 '머'(Myrrh)는 '유향'이란 뜻으로 이곳은 향료 수출지로도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아라비아산 나무 발사모덴드론 뮌르하(Balsamodendron myrrha)에서 추출된 일종의 방향성 수지(芳香性樹脂)의 이름인 뮌론(muron)에서 유래된 것으로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이 수지는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데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연고나 진정제로 사용되었고, 향으로 태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학자들이 그 도시에서 경배를 받은 아나톨리의 여신 사모르나(Samorna)의 이름에

서 유래되었다는 설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곳은 호머(Homer)의 출생지이며 학문, 특히 과학과 예술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 처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서머나는 소아시아 도시들 가운데서 지리적으로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로 인해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등 혼합화와 박해가 뒤따른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언제 누구의 봉사로 서머나에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이 기록 외에 알려진 것이 없는데 다만 “폴리갑의 생애”라는 책에서 바울이 서머나에 전도하였다고 유세비우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B.C.155-166)이 순교한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표상으로 서머나 교회 시대는 100년부터 콘스탄틴이 기독교의 자유를 선언한 313년까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콘스탄틴이 개종한 323년까지로 보기도 합니다. 엄격히 말한다면 2장과 3장의 예언들은 시간의 예언들이 아니고, 단순히 예언과 역사의 대략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역사주의 해석법에 따라서 연대들을 산정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역사적 연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2. 예, 서머나가 그렇게 아름답고 유서(由緒) 깊은 도시이군요. 지금 이즈미르가 서머나였다고 하셨지요?(예)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런 찬사가 합당하도록 그렇게 아름다운지.

답: 저도 가보고 싶은 생각이 나네요. 여전히 아름다운 천연경관이겠지요. 천연계야 많이 변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닐까요?

3. 이런 것은 여담이고, 서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이것을 두드릴수록 향기가 더 짙어진다고 했잖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더욱 향기로운 신앙생활을 드러낸 모양이지요?

답: 일곱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책망이 없고 칭찬과 권고만 있습니다. 그중에 서머나 교회에는 환난을 견딘 사실을 크게 칭찬했지요. 서머나 교회에도 사자, 즉 지도자에게 편지를 했는데, 당시 서머나 교회 지도자가 환난 중에서도 교회를 진리의 정도로 잘 이끌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는 폴리갑이라고 전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이름을 쓰면 폴리카푸르스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그냥 폴리갑이라고 사용해 왔습니다. 이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는 니케아 회의 이전 시대 교부들이라는 책에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계시록의 서머나 교회 사자가 바로 폴리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제국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모든 제국 시민들에게 강요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도 강요되었지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지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감독 폴리갑을 잡으라는 특명이 내린 것입니다. 그가 교인들을 굳게 진리의 신앙에 세우고 요동하지 않게 잘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이 전하는 바에는 기원 155년 2월 23일 토요일에 운동경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구경꾼들이 운집해 있는 운동장에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기록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꽤 잡힌 모양입니다. 거기서 잡힌 한 어린 노예 그리스도인이 고문에 못 이겨 폴리갑의 은신처를 발설했고 군인들은 그곳은 급습해서 폴리갑 감독이

잡혔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86세가 넘었습니다. 그런 몸으로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오히려 음식을 대접하면서 최후로 기도할 시간을 한 시간 얻어서 기도하고 호송되었는데, 폴리갑의 인격을 잘 아는 호송관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감독님,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거짓으로라도 말씀하시고 제물을 드려서 죽음을 면하세요.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더 잘 섬기면 될 것 아닙니까.” 폴리갑은 그렇게 동정하는 호송관에게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겠지요. 그는 드디어 그를 처형하기 위하여 마련된 운동장으로 호송되었고,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폴리갑의 인격과 덕망을 흠모하던 총독은 “당신의 고령을 생각하시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가이사로 맹세하노니 황제의 신상에 절하면, 당장에 풀어 주겠소.” 그러자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섬겨 온 주님, 그분은 언제나 나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셨소. 그분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일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욕하고 모른다고 할 수 있단 말ियो.” 그래도 총독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배우기 원한다면 내게 하루를 주시오. 당신이 그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지방 총독이 격분하여 말하기를 “네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내게는 사나운 짐승이 있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야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하자 폴리갑은 조용히 답합니다. “어서 맹수를 부르시오. 우리에게는 악한 것을 택하기 위하여 선한 것을 회개하는 습관은 없소. 악한데서 의로운 데로 바꾸는 것이 내게 합당한 것이요.” 그러자 총독은 “네가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너를 불태워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시오. 이제 주저할 필요가 없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이윽고 총독의 명령이 내리자, 그 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먼저 나무를 가지고 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불이 붙으면 몸부림치고 달아날 것을 염려하여 집행인들이 몸을 화형주에 못 박으려고 하자, “나를 이대로 두시오. 내게 불을 견딜만한 힘을 주신 분께서 당신들이 못질을 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이 불길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힘을 주실 것이요.”라고 말했고, 형리들은 그 말을 믿고 그를 느슨하게 묶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형리들이 장작에 불을 피워 그를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폴리갑의 유명한 기도가 그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습니다. 한 번 들어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와 권세와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당신 앞에서 기거하는 이의 온 가족의 하나님이신 당신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날 이 시간에 성령의 불멸성 안에서 영과 육이 다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순교자의 반열과 당신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당신 앞에서 있는 저들의 자리에 값지고 흠향하실 수 있는 제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짓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이 이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이루어주신 것이옵나이다. 이를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늘의 대제사장,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오늘날과 앞으로 다가올 세세토록 독생자와 성령으로 더불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날 폴리갑과 함께 서머나 교회 성도 11명이 화형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규합해서 행정당국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저지른 일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교인들이 폴리갑의 타다 남은 유해를 가져가서 장사하는 것도 막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니케아 회의 전 시대 교부들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가 바로 이 폴리갑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 우리가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행사할 수 있을까 참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편한 시대가 되어서 교인들이 자기 편리를 도모하느라고 교회 출석하는 것도 잘 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칭호로 편지를 보냈지요?

답: 그것은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태에 합당한 칭호로 편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엄청난 고난과 순교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우주와 만물과 생명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칭호입니다. 이미 1장 17,18에서 말씀하신 칭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결코 잃는 것이 아니라는 보증입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것을 확보한 것이지요. 그것은 모든 것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1:18에서 전에 죽었었노라고 하셨지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는 산 자라고 하셨습니다. 순교의 환난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에게 아주 적절한 위로와 격려와 용기의 말씀이지요. 지금 비록 죽지만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증한다는 칭호입니다. 부활을 약속하는 칭호이지요. 순교자가 많이 나온 교회, 순교자를 많이 배출하는 시대의 교회에 아주 적절한 칭호로 편지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호흡하고 활동하고 있지만 영원한 안목으로 보시는 주님께는 우리가 이미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보이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교인들에게 “너희가 죽었고,”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당시에 살아 있는 자들인데 너희가 죽었고 라고 한 것은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상한 말이지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골3:3,4)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서머나의 순교자들이나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잠든 사람이나 다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4. 참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인내하며 충성하며 생활하라고 그런 칭호로 편지를 하셨군요. 서머나 교회는 아주 환난을 극심하게 당했네요.

답: 9절을 보면 그렇지요.

[계2: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들은 환난을 당했고 아주 궁핍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요할 수가 없지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부요하다고 보증하십니다. '환난'에 해당하는 헬라어 “들리프신”은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러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신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외부적 핍박을 나타냅니다. 또한 “궁핍”이라는 헬라어 “프토케이안”은 “외적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인 빈곤”을 뜻합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당한 경제적 제재나, 적대 감정을 가진 유대인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한 경제적 어

려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인들의 형편에 대하여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가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실직, 빈곤, 투옥, 짐승의 밥, 화형 당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지요. 또 이들이 궁핍한 것은 주로 하층민들이 교인이 되었다는데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노예가 교인들의 주류였다고 하네요. 예수님은 “내가 … 아노니”라고 하셨는데, 여기 안다는 말도 역시 오이다입니다. 서머나의 모든 사정을 시시콜콜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확인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보장하십니다. 사실 서머나 도시 자체는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온갖 핍박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궁핍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부요하다고 인정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궁핍하나 내적으로 정결하고 부요함을 의미하지요. 이는 외적으로는 부요하나 내적, 영적으로 궁핍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정반대 현상입니다.(계3:17) 오늘날 교회는 정말 라오디게아 상태가 아닙니까. 미지근한 것도 그렇고요. 그러나 서머나 상태도 힘들지요. 빌라델비아 상태가 딱 좋은데, 우리가 내외로 다 서머나 교회 같은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면 좋겠지요.

5. 다음 말씀이 자칭 유대인에 대한 말씀인데, 서머나 교회의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도한 사실과 관계있는 말씀인지요?

답: 9절 후반에 자칭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 말씀대로 그들은 사단의 회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서머나의 유력한 위치에 오른 자들이 많아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방해하는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황제 숭배를 이용하여 거짓된 말로 로마 제국을 충동해서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처형한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것을 천국 시민권으로 오해함으로 더욱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 여러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 가운데 유대주의는 가장 포괄적이며 무서운 기독교 진리의 훼방 자였습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바클레이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훼방하였는지 여섯 가지로 요약해 보여주었네요. 첫째,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성만찬 예식을 곡해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식인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애찬, 유12에 기록되어 있는데, “애찬”은 헬라어로 “아가파이스”라고 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서로가 준비한 음식으로 구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 위한 식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아가페”라는 애찬과 주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만찬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뚜렷하게 구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유다서에 말하는 “아가파이스”는 단순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아가페”만이 아니라 성만찬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애찬을 남용하여 자신의 탐욕이나 음란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고전11:20; 벧후2:13) 두려움 없이 불경건한 자세로 애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쳐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서머나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 애찬을 훼방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부도덕한 사랑의 음탕한 모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관계를 악화시킨다고 훼방했습니다. 한 가정에 그리스도인이 생기면 그런 불화가 일어나지요.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마10:34~38을 봅시다.

[마10:34~38]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
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8 또 자기 십자
가를 지고 나를 좃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깐 그들이 비난하기에 좋은 재료가 될 수밖에요. 넷째, 신상이 없이
예배한다고 무신론자들이라고 비난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도 신상 없이 예배했는데도 그렇게
이방인들과 한패가 되어서 비난했습니다. 다섯째,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불충한 시민이고 반역할 가능성이 짙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최후의 심판이
불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것을 사용하여 불 지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로 당시에
이런 비난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요. 이것이 서머나에 사는 유대인들의 행패였습니다.
바클레이 박사가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6.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사단의 회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회라는 말
의 참 뜻은 무엇입니까?

답: 이 말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여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고 있는
서머나의 유대인들은 사실상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
한 유대인은 혈통(血統)에 의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한 이면적 유대인이기
라고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롬2:28,29) 서머나의 유대인은 도리어 사단의 회였다. “사
단의 회”는 자칭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여호와의 총회”라 했으나(민14:27,35) 그들의 실체는
사단의 자식이며,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
상에 계실 때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요8:31~47) 그들은 교회와 복음을 방해하며
교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유대인의 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있었지요. 여기 “회”라고 번역
했는데, 개역개정판에는 “사단의 회당”이라고 고쳤습니다. 원어가 “쉬나고게”인데 이것은 유
대인의 회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공부하고 그들 민족
의 필요를 의논도 하고 교육하는 그런 집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집이 교회당, 또는 예배당
인데, 그냥 교회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번역해서 사단의 회라고 했는데,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이 더 합당한 번역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이 거기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의논을
해서 서머나 교회가 엄청 환난을 겪은 것 같습니다. 바클레이 박사의 계시록 강해를 보면 로
마 상류층 부인들이 유대인들의 도덕적 깨끗함에 아주 호감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방
인들 사이에는 성적 문란이 심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유대인을 좋아하는 이들 상류층 부인
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하여 고관들을 만나는 통로를 만들고 그렇게 핍박했다
고 합니다.

7.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답: 신약성경을 보면 그런 현상은 아주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것부터,
스데반을 죽인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하는 동안 어느 도시든지 그들을 반대하고 핍
박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반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가르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믿는 믿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니까 그런 행패를 부리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다를 것이 없지요. 이 길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하니까 불신자는 오히려 덤덤한데 종교인들이 민감하지요. 그들의 종교와 신앙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때 받는 반응을 생각하면 짐작할 수 있지요.

8. 목사님, 그렇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을 약속하고 마쳐야 하겠네요.

답: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진리를 깨닫고 바른 믿음의 길에 서서 자칭 유대인들의 훼방과 비난에도 곳곳하게 믿을 지켜야 하겠지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서머나 교회의 사정을 통하여 믿음을 복돋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밀려와도 굳게 진리에 서서 진리를 옳게 분변하여 바른 길로 믿음을 잘 지키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